

201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2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민담을 듣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련을 겪을 때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군.
- ②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겠군.
- ③ 당장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겠군.
- ④ 때를 놓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군.
- ⑤ 도움을 받았다면 잘 된 다음에는 잊지 않고 보답을 해야겠군.

2. (물음) 강사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기관의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② 면역력을 강화해 외부에서 침투한 병원균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③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원활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④ 한정된 표면적을 확장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⑤ 외부 물질과 효과적으로 접촉해 기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3. (물음) 아래 달력을 참고할 때,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올바른 것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10	11	12	13	14 초복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중복	25	26	27	28	29	30
31	8/1	2	3	4	5	6
7	8 입추	9	10	11	12	13

- ① 8월 9일
- ② 8월 10일
- ③ 8월 11일
- ④ 8월 12일
- ⑤ 8월 13일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을 정리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의견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의견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5. (물음) 의견이 대립하는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윤독 도서는 중학교 때 읽지 않았던 책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② 윤독 도서는 급우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③ 윤독 도서는 구입했지만 미처 읽지 못한 책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④ 윤독 도서는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윤독 도서는 읽고 싶었지만 구입하기 어려웠던 책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읽고 '학습 태도'에 대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체중 감량,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영양소가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과 잘못된 운동 방법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라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살 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성분이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약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식생활에 유의하고 운동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체중 감량의 목적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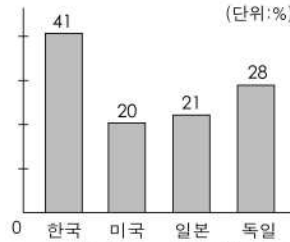
- ① 잘못된 학습 방법은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실력을 쌓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② 노력 없이 손쉽게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연습과 복습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 ③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완전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 ④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 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일시적으로 성적이 향상될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하지 않으면 곧 다시 성적이 하락하기 쉽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통계 자료

▶ 주요국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 자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2009년)

(나) 인터뷰

- ㄱ.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개는 그냥 복제해서 쓰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학생 >
- ㄴ.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중등학교 때부터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정부 관계자 >

(다) 연구 보고서

- ㄱ.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피해 추정액은 2009년 기준 5억 7천만 달러이며, 이로 인해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 지수는 2007년 3위(64개국 중)에서 2009년 16위(66개국 중)로 하락했다.
- 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총 취업자 수는 57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은 청년층의 취업 비율이 높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요하다.

- ① (가)와 '(나)'의 '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실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낮은 점을 지적한다.
- ② (가)와 '(다)'의 '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높은 것이 국내 IT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의 원인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④ '(나)'의 'ㄱ'과 '(다)'의 'ㄴ'을 활용하여,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의식 없이 행해지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 ⑤ (다)를 활용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언급한다.

8. <보기>는 수시전형에서 ○○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개요이다.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지원 동기

- 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인물
- 중학교 시절부터 좋았던 ◇◇과목

II. 학업수학능력 및 교내·외 활동

- 고교 시절의 교과 성적의 특징
 - 내신 성적 ㉠
 - 교과 외 독서 활동 ㉡
- 고교 시절의 교내·외 활동 ㉢
 - 학급 임원 경력
 - 동아리 활동 경력
 - 1학년 학급 회장 활동 경력 ㉣

III. ○○학과 진학 후 학업 계획

- 전공 관련 학업 계획
- 전공 외 대학활동 계획
- 용돈을 모아 등록금에 보탬 경험 ㉤

IV. 그 외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

- ① ㉠은 '점진적으로 상승한 내신 평균 등급'으로 구체화한다.
 ②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다른 교과에 비해 높은 ◇◇과목 성적'으로 바꾼다.
 ③ ㉢의 하위 항목으로 '환경 보호 단체 활동 경력'을 추가한다.
 ④ ㉣은 'II-2-가' 항목과 중복되므로 'II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⑤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V'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9. <보기>의 조건에 따라 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짧은 글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비유와 역설을 사용할 것
 ○ 완곡하게 독자의 행동을 유도할 것

- ① 봉사 활동은 나눌수록 커지는 마법입니다. 지금 사랑 나눔의 마법사가 되어 세상 모두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② 나눔을 위한 봉사 활동은 나를 위한 활동입니다. 나눔 통해 내 마음이 천사같이 아름다워지는 봉사 활동에 동참하세요.
 ③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녀와 손잡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땀 흘리는 것보다 더 값진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④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격언을 아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처럼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⑤ 봄별이 온 세상을 녹이고 새싹을 돋게 하듯 봉사 활동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행복을 싹트게 하는 아름다운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10. 다음은 한 방송국의 퀴즈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만인 퀴즈' 게시판

제목 예선전 ㉠응모 결과에 불만이 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동에 사는 다올입니다.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올해 들어 '백만인 퀴즈' 예선전에 ㉡여러번 응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드디어 예선전에 오라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응모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던 터라 이 메일을 보고 하늘을 날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메일을 열어보니 예선전에 오라는 날짜가 바로 오늘이지 뭐니까? ㉣다음 예선전 공모에서는 공개 추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유를 두고 날짜를 알려주셔야 예선전을 치를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선전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져서 하루 종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① ㉠ : 글의 내용과 어울리도록 '응모 결과를 알려 주는 과정'으로 수정한다.
 ② ㉡ :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으로 수정한다.
 ③ ㉢ : 문장의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메일을 받았습'니다'로 수정한다.
 ④ ㉣ :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⑤ ㉤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치밀어서'로 수정한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것은?

<보 기>

○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예)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다. : '버렸다'는 '가다'의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함.

-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와다.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
 ⑤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

12.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살려 문장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단어	의미		문장
따르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	㉠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	㉡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	⇒	㉢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	㉣
	나란히 같이 움직이다.	⇒	㉤

- ① ㉠ : 누나를 따라 시장 구경을 갔다.
 ② ㉡ : 먹성 좋기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③ ㉢ : 우리 집 개는 어머니를 유난히 따른다.
 ④ ㉣ : 그가 하는 대로 따라서 했다.
 ⑤ ㉤ :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대청소를 했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수가 장수와 군졸에게 분부하되,
 “천지자연의 법칙도 변하여 장사랑을 없애고자 하나니라. 너희들은 조금도 겁내지 말라.”
 하고 한결같이 명령을 내리며 외치어 말하기를,
 “장사랑은 빨리 나와 상대하라.”
 하며 인하여 깃발을 휘두르며 북을 울리어 군사를 재촉할 때 십만의 많은 군사가 한숨을 쉬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독한 바람이 불어 모래와 돌이 흩날리니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분별하지 못하더라. 공중으로부터 화살과 돌이 비 오듯이 내려오고 겹하여 폭우가 동이로 붓는 것처럼 오거늘 순식간에 물이 넘쳐서 바다가 되는지라. 적병이 물에 빠져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요, 서로 밟히어 죽는 자가 절반이 넘더라.
 사랑이 건디지 못하여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남은 군사를 이끌고 밖으로 탈출하여 도망하거늘 원수가 진동장군 위홍과 진북장군 황홍태를 불러 잘 훈련된 병사 오만 명을 주어 사랑을 추격하라 하고 징을 치며 군사를 거두니 바람과 비가 그치

고 하늘과 땅이 명랑하거늘 진에 돌아와 형세를 살펴보니 물이 한 길이 넘고 죽은 시체가 큰 산 같더라.

원수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죽은 자는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약간이지만 살아남은 군사는 모두 천자의 백성이니 해치지 말라.”

하며 각각 양식을 주며 말하기를,

㉠ “전에 살던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니 모두 칭찬하더라.

원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사랑을 쫓더라.

사랑이 그 날로부터 삼백여 리를 행하여 호남성에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아니하거늘 원수가 깃발을 들어 군사를 호령하며 호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장수의 지휘대에 높이 앉아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놀리며 세월을 보내더니 이리하기를 십여 일이 지났더라. 사랑의 군사는 양식이 떨어지고 뜻밖에 물까지 말라, 살아 있는 군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여 서로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며 서로 통곡하니 울음소리가 하늘을 꿰뚫거늘 사랑이 화가 나서 표기를 불러 말하되,

㉡ “적의 장수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늘이 돕는가?”

표기가 말하기를,

“진실로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십 년 전에 문산영*의 아들 석화룡은 천하의 명장이라. 하늘이 도울 장수로 알았나이다. 그러나 그 화룡은 죽어서 없는가 하였더니 진실로 이상합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장사랑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표기를 벌하고 몰래 도망을 가지만, 화룡이 이를 알고 장사랑을 쫓아가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 그 후 화룡이 어릴 때 장사랑이 일으킨 난리 중에 붙잡혀 간 부모님과 그때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표홀이 문산이란 곳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 천자의 허락을 받고 문산으로 찾아 나선다.

즉시 군사를 명령하여,

“표홀을 찾아라.”

하니 군사들이 명령을 듣고 표홀을 부르니 표홀이 크게 놀라서 생각하되,

㉢ “이제는 분명히 죽으리로다. 남에게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자결을 하리라.”

하고 칼을 뽑을 때 ㉣ 군사들이 급히 달려들어 칼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손을 잡고 등을 밀어 들어가니 표홀이 어찌할 수 없어 대청 아래에 엎어지니 원수가 표홀을 보고 그 얼굴이 어렴풋하거늘 진실을 알고자 하여 묻기를,

“그대가 이십여 년 전에 사랑과 함께 호암성을 치던 파부파사촌에 살았던 일기총 표홀인가?”

대답하기를,

“그 때의 표홀입니다.”

하니 원수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 “그러하면 호남 대관성에 계신다더니 어찌 여기에 살며 혹시 선악산에서 어떠한 사람을 구제한 적이 있는가?”

표홀이 대답하기를,

“문산영의 아들 석화룡을 구제하였으며, 이곳에 와서 살기

는 문산영을 쫓아왔거니와 어찌 아시나이까?”

원수가 그제야 표흠인 줄 알고 다시 물어서 말하기를,

㉠ “화룡은 석처사의 아들인데 어찌해서 문산영의 아들이라 하는가?”

표흠이 대답하기를,

“석처사가 사랑에게 붙잡힌 후, 사랑이 문산을 지키며 살게 하여 문산영이라 하나이다.”

원수가 눈물을 흘리며 정신 없이 대청 아래로 뛰어내려 와서 표흠의 손을 잡고 말하되,

“존공은 나를 모르시는가? 내가 곧 화룡이로소이다.”

표흠이 그제야 자세히 보니 과연 면목이 어렴풋하거늘 크게 놀라고 한편으로는 반가운지라. 말하되,

“원수의 모습이 전과 달라 위엄 있는 풍채가 늙음하므로 청산에 우뚝 솟은 듯하여 기억하지 못하나이다.”

원수가 표흠을 인도하여 단상에 앉히고 전날의 은혜를 무수하게 칭찬하며 말하기를,

“존공의 말씀과 같을진대 부친은 문산영 관청에 계셔야 할 텐데 어찌 본관이 도망하였다 하시는가?”

표흠이 그제야 앞 뒤의 일의 전모를 이야기할 때,

“얼마 전에 상위 관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시고 염려하시더니 도망하실 때 저도 모르게 갔사오니 거주를 알지 못하나이다.”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어지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진정하여 표흠을 붙들고 말하되,

“내가 말을 달려 밤중에 도착할지라도 부모님을 찾아 볼 것이니 표흠공은 나를 위하여 부친을 찾아보게 하소서.”

하고 군마를 성중에 쉬게 하고 표흠과 함께 두루 찾아다니다가 삼일만에 문산성에 돌아오니 그 성이 작고 양식이 다하였기에 기남성으로 갈 때 표흠은 진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며 행군하여 구계산을 지나가더라.

* 문산영 : 문산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

— 작자 미상, 「석화룡전」 —

13 위 글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기가 석화룡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장면
- ② 장사랑이 일으킨 난리 중에 석처사가 붙잡히는 장면
- ③ 석처사가 장사랑의 명령을 받아 문산으로 떠나는 장면
- ④ 표흠이 문산으로 떠나는 석처사를 쫓아가 함께 사는 장면
- ⑤ 석처사가 상위 관청의 공문을 보고 석화룡을 찾아가는 장면

1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에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화룡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 ② ㉡ : 장사랑은 싸움에서 진 이유를 하늘의 뜻으로 여기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 : 표흠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낙담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 ④ ㉣ : 화룡은 상대방이 자신이 찾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묻고 있다.
- ⑤ ㉤ : 화룡은 자신의 부친을 문산영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영웅의 일생담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고귀한 혈통의 인물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출생하지만, 어려서 버려져 적대자에 의해 죽을 고비를 겪는다. 하지만 조력자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성장하여 자신의 능력과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큰 공을 세우고 승리자가 된다.

- ① 표흠은 어린 시절 죽을 위기에 처한 화룡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② 표기의 말을 통해 화룡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영웅임을 알 수 있다.
- ③ 화룡이 장사랑의 군사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장면은 큰 공을 세우는 부분이다.
- ④ 장사랑은 천자와 대립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화룡을 죽이려고 한 적대자라고 볼 수 있다.
- ⑤ 화룡이 부모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16 ㉣에서 표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 ① 속수무책(束手無策)
- ② 와신상담(臥薪嘗膽)
- ③ 사생결단(死生決斷)
- ④ 천신만고(千辛萬苦)
- ⑤ 설상가상(雪上加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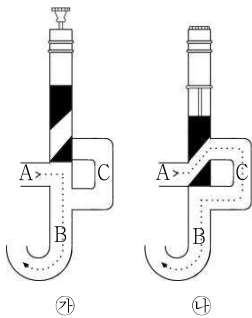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주 중에 오케스트라 뒤쪽에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커다란 악기가 강하고 화려한 소리를 내면 관중들의 시선이 일순간 그곳으로 쏠린다. 독주보다는 주로 든든한 화음으로 음악을 받쳐주는 이 악기들은 트럼펫, ㉠ 트롬본, 호른 등으로, 서양음악에서 금관악기로 분류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낯설거나 그 합금을 재료로 하는데, 그 특징은 ㉡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와 같은 목관악기와 비교를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관악기는 나무로 만들어지는 악기 - 플루트의 경우 재질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나 초기에는 나무로 제작됨 - 인 만큼 관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막는 것으로 음높이를 조절하지만, 금관악기는 연주자의 입술 모양과 불어 넣는 공기의 세기로 음높이를 조절한다. 또한 목관악기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리드(reed)를 사용하지만 금관악기는 리드가 없는 대신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 이렇듯 금관악기는 입술의 떨림이 소리의 원천인 악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금관악기에서 소리를 내기 위한 몇 가지 장치에 대해 살펴보자.

금관악기는 입술의 진동을 이용해서 악기 관내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데 이때 마우스피스(입술의 역할을 도와 관의 본체로 진동을 전해주는 기능)를 한다. 마우스피스는 기본적인 구조가 컵과 취구관(吹口管)으로 연결되는 드로트(throat)로 되어 있는데, 컵의 깊이와 드로트의 직경 등에 따라 음색이 달라진다. 즉 컵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음색이 어둡고 굵고, 깊이가 얇은 경우에는 음색이 밝고 화려하여 고음을 연주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드로트의 직경이 좁을수록 날카롭고 직경이 넓을수록 음색은 부드러워진다. 한편 마우스피스와 본관을 통해 나오는 소리를 확대하여 소리를 공명시키는 벨의 모양도 음색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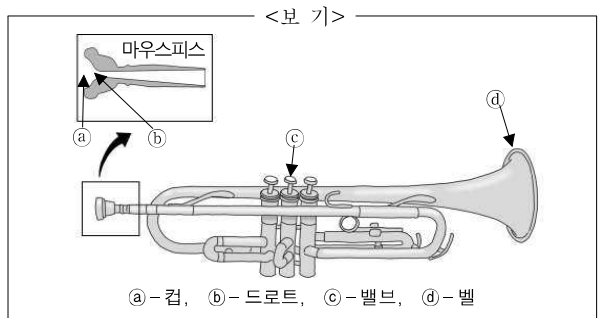
금관악기의 기본적인 음정은 관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관의 길이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무벨브 금관악기로는, 반음계는 물론 옥타브 중의 원음도 일부밖에 연주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8세기 후반 이후 여러 가지 장치가 고안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벨브이다. 벨브의 원리는 일정한 위치에서 관 속의 공기 흐름을 차단하여 관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피스톤식 벨브를 통해 그 원리를 알아보자. <그림>의 ㉢는 피스톤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A에서 들어온 공기가 바로 B를 통과하지만, ㉣와 같이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가 C를 거쳐 B를 통과하게 되어 관의 길이가 길어져 음의 높이가 낮아진다. 벨브의 발명은 금관악기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중심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문제 해결 과정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쓰이는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 ⑤ 대상의 특징과 원리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8. 위 글과 <보기>를 접한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높은 음을 연주해야 할 때는 ㉠의 깊이가 얇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
- ② 금관악기의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면 ㉡의 직경을 넓게 하여 부드럽게 할 수 있겠어.
- ③ 금관악기는 ㉢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높은 음에 취약한 악기였겠구나.
- ④ ㉢를 누르면 무벨브 금관악기가 낼 수 없는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겠군.
- ⑤ 금관악기가 다양한 음색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의 모양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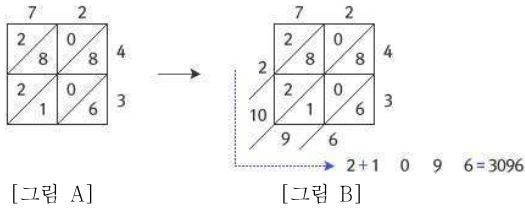
- ① ㉠과 ㉡은 주로 낯설거나 그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 ② ㉠을 연주할 때 입술은 ㉡의 리드의 역할을 한다.
- ③ ㉠은 ㉡과 달리 공기의 진동을 활용하는 악기이다.
- ④ ㉠과 ㉡을 분류하는 기준은 현재의 악기 재질과 일치한다.
- ⑤ ㉠은 입술모양으로, ㉡은 구멍을 막는 것으로 음색을 결정한다.

20. '오케스트라 : 금관악기'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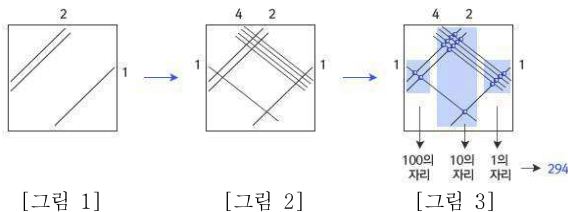
- ① 합창단 : 합창단원
- ② 피아노 : 오르간
- ③ 교실 : 음악 수업
- ④ 지휘자 : 연주자
- ⑤ 연주 : 음악회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곱셈 방식은 가로셈법 또는 세로셈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곱셈법 이외에 다른 곱셈 방식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집트 곱셈법, 러시아 농부들의 곱셈법, 영국의 레이퍼 곱셈법 등 다양한 곱셈법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곱셈법은 오늘날 왜 사용되지 않는 걸까? 겔로시아 곱셈법과 선긋기 계산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격자’라는 의미가 담긴 ‘겔로시아 곱셈법’은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짚 구조인 격자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 72×43 ’을 계산해보자. 먼저 위의 [그림 A]와 같이 격자무늬에 대각선을 그린 후 네모 칸 위와 오른쪽에 곱하는 두 수 72와 43을 써 넣는다. 그리고 7과 4를 곱한 결과인 28을 왼쪽 위 칸에 10의 자리 2와 1의 자리 8로 나누어 각각 숫자 하나씩을 써 넣는다. 마찬가지로 2와 4를 곱한 결과인 8을 써 넣되, ① 대각선 위쪽에 0을 쓰고 밑에 8을 써 넣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격자무늬의 나머지 부분도 채워 넣는다. [그림 B]와 같이 격자무늬에서 사선을 바깥으로 연장한 후 사선 안의 수를 더하여 적으면 왼쪽부터 차례로 2, 10, 9, 6이다. 이제 사선의 숫자를 왼쪽부터 차례로 적는다. 이때 사선의 수를 더하여 나온 값이 두 자리 수인 경우에는 올림으로 계산한다. 즉, 사선을 따라 더한 결과가 모두 4개이므로 처음 2는 1000의 자리, 10은 100의 자리, 9는 10의 자리, 6은 1의 자리이다. 따라서 $72 \times 43 = 3096$ 이다.



‘선긋기 계산법’은 두 수의 곱을 직접 셈하지 않고 직선을 그려 답을 찾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긋기 계산법으로 ‘ 21×14 ’를 알아보자. 먼저 위 [그림 1]과 같이 21을 왼쪽 위에 2개, 오른쪽 아래에 1개의 사선을 긋는다. 즉, 10의 자릿수만큼 왼쪽 위에 사선을 긋고 1의 자릿수만큼 오른쪽 아래에 사선을 긋는다. 이렇게 사선이 그려진 사각형에 14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10의 자릿수는 그 수만큼 왼쪽 아래에 사선으로 긋고, 1의 자릿수는 그 수만큼 오른쪽 위에 사선으로 긋는다. 즉 10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사선은 1개, 1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사선은 4개를 긋는다. 그리고 ㉠ [그림 3]과 같이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어 보자. 100의 자리에는 점이 2개 있고, 10의 자리에는 9개, 1의 자리에는 점이 4개 있으므로 21×14 의 답은 $200 + 90 + 4 = 294$ 이다.

겔로시아 곱셈법과 선긋기 계산법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곱셈도 가능하다. 하지만 겔로시아 곱셈법은 곱하는 수들의 자릿수에 맞게 격자를 그려야 하고, 선긋기 계산법도 곱하는 수들의 각 자릿수의 개수만큼 사선을 그려야 한다. 큰 수를 곱할 때는 많은 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격자나 선을 그을 필요가 없는 오늘날의 곱셈법이 등장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수학적 방식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수학에서 곱셈법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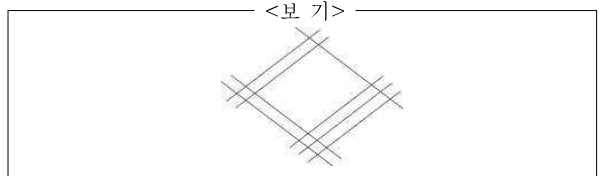
21. 글쓴이의 집필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질문은?

- ① 곱셈법은 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
- ② 현행 곱셈법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가?
- ③ 수학에서 곱셈법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④ 겔로시아 곱셈법과 선긋기 계산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⑤ 겔로시아 곱셈법과 선긋기 계산법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2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0이 1의 자릿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② 8을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로 나타내면 08이기 때문이다.
- ③ 격자무늬의 맨 오른쪽 위 칸은 0을 먼저 써야 하기 때문이다.
- ④ 격자무늬의 아래쪽 칸과 위쪽 칸에 있는 두 수 중에서 첫 수는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 ⑤ 격자무늬에서 사선을 바깥으로 연장하여 사선 안의 수를 더했을 때 10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3. <보기>는 ‘선긋기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23에 21을 곱셈하는 법을 나타낸 것이다.
- ② 10의 자리에서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은 8개이다.
- ③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하면 가로 2개, 세로 3개의 칸이 있는 격자무늬를 그려야 한다.
- ④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하면 격자무늬의 오른쪽 위 칸은 $\frac{0}{6}$ 가 될 것이다.
- ⑤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하면 격자무늬에서 사선을 바깥으로 연장하여 사선 안의 수를 더하면 1의 자릿수는 3이 될 것이다.

24. ㉡의 ‘과’와 쓰임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영기는 헤림과 여고 동창이다.
- ② 지현은 학교 폭력과 맞서 싸웠다.
- ③ 충근과 덕희는 노래를 같이 불렀다.
- ④ 연서는 미국인과 매우 유사하게 영어를 발음한다.
- ⑤ 명우는 멋진 여성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누끼고 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
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書)」 -

(나)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봄바람 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토르소*처럼 ㉢ 몸통만 남아
숨막히게 답답하다
라일락 향기 짙어지면 지금도
그날의 기억 되살아나는데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늘어선
길가의 수양버들
새 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 몸통으로 잎이 돋는다

- 김광규, 「4월의 가로수」 -

* 토르소: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으로 된 조각상.

(다) 아프다, 나는 쉬이 꽃망울을 터트렸다
한때는 자랑이었다
풀밭에서 만난 봉오리들 불러모아
피어봐, 한번 피어봐 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상처도 없이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내가 부른 꽃들
모두 졌다

아프다, 다시는 쉬이 꽃이 되지 않으려나
꽂꽂 얼어붙은
내 몸의 수만 개 이파리들
누가 와서 불러도
죽다가도 살아나는 내 안의 생기가

무섭게 흔들어도
다시는 쉬이 꽃이 되지 않으려나.

- 오봉옥, 「꽃」 -

2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삶의 자세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④ (가)~(다)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동경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② ㉡은 '호울로 서면' 만나게 되는 '본연한 자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은 1행부터 3행까지의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 '토르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 ④ ㉣은 '새 잎조차 피어날 수' 없고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잎을 피워내고 있다.
- ⑤ ㉠이 '열렬한 고독'을 거쳐 ㉡으로 변화하듯, ㉢은 '늘어진 가지'를 거쳐 ㉣으로 변화하고 있다.

27. (나)와 (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28.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쉬이 꽃망울을 터트렸다'는 인식은 화자에게 '아프다'라는 정서를 유발한다.
- ② '노래를 불렀으니'는 '봉오리들'을 피우기 위한 화자의 행위이다.
- ③ '이제 내가 부른 꽃들 / 모두 졌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다.
- ④ '내 몸의 수만 개 이파리들'은 과거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다.
- ⑤ '무섭게 흔들어도'는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몹시 절실한 순간이다.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컴퓨터용 한글 자판에는 세벌식 자판과 두벌식 자판이 있다. 그리고 세벌식 자판이 두벌식 자판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두벌식 자판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존의 컴퓨터 사용자의 대다수가 두벌식 자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집단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네트워크 효과 또는 ㉠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자 기반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용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은 더욱 증가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인터넷 지식 검색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 기반이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표준 달성 여부이다.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에서 한쪽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수를 확보해서 시장 지배적 제품으로서 표준이 되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운영 체제로서 윈도우즈는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윈도우즈 로고를 붙여야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윈도우즈의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윈도우즈 대신 다른 운영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호환성이다.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비용 없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시중에 판매되는 DVD 타이틀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된다고 하자. 소비자로서는 한 가지 방식만을 지원해 주는 DVD 플레이어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 보다 다양한 DVD 타이틀을 볼 수 있는 DVD 플레이어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질이나 가격에 민감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외부성은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품질 이외의 요인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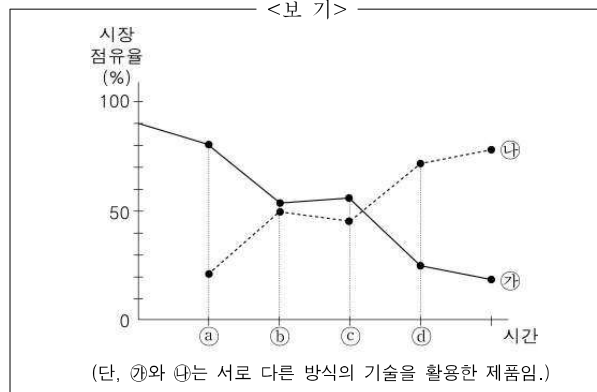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으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②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가장 편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특정 제품의 가치는 가격이나 품질 이외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④ 사용자 기반이 클수록 사용자 개인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 ⑤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택할 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30.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준하는 친구들과 사이에 유행하는 청바지가 부러워서 같은 브랜드의 청바지를 구입했다.
- ② 윤정이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주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가입했다.
- ③ 상훈이는 기본료가 비싼 대신 심야 시간에 50% 할인이 되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쓰기로 했다.
- ④ 민아는 새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구매하면서 올해 가장 많이 팔렸다는 제품을 사기로 결정했다.
- ⑤ 지원은 새로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강아지를 사서 키우기로 결정했다.

31. 위 글과 <보기>를 접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이전의 시기에는 ㉠이 업계 표준이었겠군.
- ② a ~ b의 기간에 새로운 방식인 ㉠이 점차 ㉡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경쟁을 시작하겠군.
- ③ ㉠의 입장에서는 b ~ c의 기간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겠군.
- ④ c ~ d의 기간에 ㉡의 호환성이 높아진다면 점유율의 하락세가 완만해질 수 있겠군.
- ⑤ d 이후의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를 표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겠군.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년은, 그곳에 앉아 바라볼 수 있는 바깥 풍경에,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손님이 벗어 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고, 슬리퍼를 권하고, 담배 사러, 돈 바꾸러 잔심부름을 다니고 그러는 이외에 그가 이발소에서 하는 일이란, 손님의 머리를 감아 주는 그것뿐으로, 이렇게 툼툼이 밖이라도 내어다보지 않고는 이러한 곳에서, 누가 그저 밤만 얻어먹고 있겠느냐고, 그것은 좀 극단의 말이나, 하여튼, 그는 그렇게도 바깥 구경이 좋았다.

그렇게 매일 내어다보고 있는 중에, 양쪽 천변을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가 무어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제판에는 너무나 신기하여, 그래, 그는, 곧잘, 이발하러 온 손님이 등 뒤에서,

“인석, 뭘 이렇게 정신없이 보구 있니?”

하고라도 물을 양이면,

“저것 좀 내다보세요.”

바로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창밖을 손으로 가리키고,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데, 누구.”

손님의 넥타이 매던 손을 멈추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내다보느라면, 판은 낡은 노동복에 때 묻은 나이트캡을 쓰고, 아무렇게나 막되어 먹은 놈이 덜렁덜렁 빨래터 사다리를 올라온다.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대리”께 가게루 갈 테요.”

“㉠ 어디…… 참, 판은 가게루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려서서 이쪽으로 오요?”

“그래 인젠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젠, 개천가 선술집으로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참, 판은 술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뭐든지 샀는지, 그냥 거진 갔다 올 까닭이 있나?”

“㉡ 왜 들어가는지 아리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대리 밑으로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릴 꺼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하고 한참 재미가 나서 이야기를 하느라하면, 그런 때마다 무슨 일이든 생기는 것도 공교로워,

㉣ “인마. 잔소리 그만허구, 어서 돈 좀 바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이발사 김 서방이, 바로 쟈 척하고 소리치는 것도 은근히 약이 오르는 노릇이다…….

소년은, 아까 한나절 아이를 보아 주던, 신전집 주인의 장구

대가리 처남이, 이번에는, 또 언제나 한가지로 물지계를 지고 천변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이는, 밤낮, 생질의 아이나 봐 주구, 물이나 길어 주구,

㉤ 그러다가 죽으려나? …….’

어린 마음에도, 어쩐지, 그러한 그가 딱하게 생각되었으나,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로, 문득 창 앞을 느린 걸음으로 점잖게 지나는 중년의 신사를 보자, 어린이의 입가에는, 제풀에, 명랑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신사는, 우선, 몸이 뚱뚱하고, 더욱이 배가 앞으로 쏘나왔다. 그것에 정비례하여, 그의 얼굴이 크고 또 살찐 것은 물론이지만, 그 큰 얼굴에 또 그대로 정비례하여, 눈, 코, 귀, 입이 모두 크다. 그 중에도 장관인 것은, 그의 코로, 그 이를테면 벌렁코 종류에 속하는 크고 둥근 콧잔등이가, 근래는 단연히 금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에 그가 애주하였을 때의 그 기념으로, 새빨강게 주독이 든 것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그러한 얼굴에다, 그 위에, 그가 애용하는 중산모를 얹고, 실내화 신은 발을 천천히 옮겨 걸어갈 때,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은근한 기쁨을 갖더라도,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

[A] 구나 그가 남의 앞에서 즐겨 꺼내 보는 그 시계는 참말 금시계지만, 역시 참말 심팔금인 것같이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싶은 그 시계줄이, 사실은 오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발소 안에서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소년은, 그의 태도와 걸음걸이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에, 더욱이 속으로 우스웠다.

그 웃음에는, 그러나, 물론 악의 같은 것이 품어 있지는 않았다. 만약 있다면, 오히려 호의일 것이다. 자기의 배우가 부회원의 것을 다시없는 명예로 알고, 때로, 육십 노모까지를 끼워서 온 가족을 인솔하고 백화점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 취미를 가진 그를, 사실 이 소년이 미워한

다든 비웃는다든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 대리 : 다리.

— 박태원, 「천변풍경」 —

3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교차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인물 간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인물의 공간 이동을 통해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더해 주고 있다.
-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

33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천변의 인물들은 소년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다.
- ② 중년 신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시하고 있다.
- ③ 소년은 이발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 ④ 천변의 인물들은 둘째 대장 거지에 대해 연민을 보이고 있다.
- ⑤ 중년 신사는 그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소년의 예상이 맞는 것을 신기해 하고 있다.
 ② ㉡ :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③ ㉢ : 소년은 둘째 대장 거지가 부끄러워한다고 여기고 있다.
 ④ ㉣ : 상대의 행위를 무시하고 있다.
 ⑤ ㉤ : 대상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3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ㄱ. 문장을 길게 늘어 씬으로써 인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ㄴ. 섬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ㄷ. 섬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해당 부분에 주목하여 읽게 한다.
 ㄹ.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과 주변 사물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유머 강사가 펴낸 책의 유머 중에 ㉠ ‘보내지 않을 거야.(보 내지 않을 거야.) 그럼, 바위 내든지.’라는 말이 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생길 만한 동문서답이다. 띄어쓰기는 문장을 구성단위 별로 읽는 데에 도움을 주어,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이해되는 일을 막아 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던 옛 문헌들에서는 구두점을 사용하여 부족하나마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
제2장

지장경언해
(1765)

장수경 언해
(1918)

이 구두점을 찍는 방식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國之語音’과 ‘異乎中國’ 사이에는 가운

데에 속이 빈 동그라미 모양의 권점이 하나 있고, ‘與文字不相流通’과 ‘故愚民’ 사이에는 오른쪽에 권점이 있다. 오른쪽에 있는 권점은 구(句)이고, 가운데의 작은 권점은 두(讀)인데, 구는 오늘날의 마침표에, 두는 오늘날의 쉼표에 해당한다. 이 구두점은 한문을 읽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구두점을 찍는 방식이 있었다. 이 방식은 곧 한글 문헌에도 적용되었는데, <용비어천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두점은 후대의 한글 전용 문헌에서 문장 구성단위를 더 세분화하여 찍는 방법으로 변천하여 갔다. 위의 그림 중에서 <용비어천가 제2장> 전구와 <장수경 언해>의 첫 문장을 권점에 따라 띄어쓰기를 해 보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불휘기픈남곤 브르매아니뫼썩 곳도코 여름하느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현대어 해석)

- 용비어천가 제2장 -

이갓치 님 듯스오니 한씩 부채 모든 텃용팔부와 귀신과 스름과 안인스름등 으로 혼썩 모도여 설법하시더라

이같이 내 듣사오니 한때 부처가 모든 천룡팔부와 귀신과 사람과 아닌 사람 등으로 함께 모여 설법하시더라.(현대어 해석)

- 장수경 언해(1918) -

<용비어천가 제2장>의 띄어 쓴 첫 부분만 보면, 주어(불휘)뿌리)와 서술어(기픈>깊은)가 결합한 관형절과 이의 수식을 받는 주어(남곤>나무는)를 붙여 쓴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장수경 언해>는 주어(님>내)와 그 서술어(듯스오니>듣사오니) 사이에 권점을 찍었고, 관형어(모든)와 체언(텃용팔부>천룡팔부) 사이, 부사어(혼썩>함께)와 서술어(모도여>모여) 사이에도 권점을 찍어서 띄어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보아, 후대로 갈수록 권점을 찍은 곳이 현대어에서 띄어 쓴 곳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문법적인 인식은 있으면서도 옛 한글 문헌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띄어 쓰지 않아도 국한 혼용의 글에서는 문장상의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나무와 종이의 낭비 때문이다. 옛날 목판본이나 금속활자본에서 띄어쓰기를 한다면 상당한 지면을 더 차지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종이와 재목이 상당량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값이 싼 양지와 신식 활자가 도입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을 찍는 단위 별로 띄어 씬으로써 명실상부한 띄어쓰기가 된 것이다.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한글 맞춤법 규정이 되었다. 현재의 띄어쓰기의 원칙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으로서 구두점을 찍었던 과거의 문헌에 반영되어 있는 문법 의식을 계승한 것이다.

36.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두점의 사용은 한문의 표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 ② 띄어쓰기 실시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다.
- ③ 세로쓰기로 된 옛 문헌은 문장의 끝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 ④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에도 문장 구성단위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 ⑤ 띄어쓰기는 문장의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이해되는 것을 막아준다.

37. 용비어천가를 <장수경 언해(1918)>가 간행된 해에 다시 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구두점을 더 찍었을 자리를 모두 찾아 묶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띄어쓰기 ⑤ 띄어쓰기 ④ 띄어쓰기 ③ 띄어쓰기 ② 띄어쓰기 ①	불 ① 기 ② 단 ③ 기 ④ 단 ⑤ 기 ⑥ 단 ⑦ 기 ⑧ 단 ⑨ 기 ⑩ 단 ⑪ 기 ⑫ 단 ⑬ 기 ⑭ 단 ⑮ 기 ⑯ 단 ⑰ 기 ⑱ 단 ⑲ 기 ⑳ 단 ㉑ 기 ㉒ 단 ㉓ 기 ㉔ 단 ㉕ 기 ㉖ 단 ㉗ 기 ㉘ 단 ㉙ 기 ㉚ 단 ㉛ 기 ㉜ 단 ㉝ 기 ㉞ 단 ㉟ 기 ㊱ 단 ㊲ 기 ㊳ 단 ㊴ 기 ㊵ 단 ㊶ 기 ㊷ 단 ㊸ 기 ㊹ 단 ㊺ 기 ㊻ 단 ㊼ 기 ㊽ 단 ㊾ 기 ㊿ 단
---	---

- ① a, b, e
- ② b, d, e
- ③ a, b, e, f
- ④ a, c, d, e
- ⑤ a, b, c, d, e, f

38. ㉠과 같은 방식의 유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난 오래 잘 해.” “그래, 너 노래 잘 해.”
- ② “넌 예쁜 천사.” “싫어, 난 재봉틀 살래.”
- ③ “다시 만나줘.” “그래, 미역도 줄게.”
- ④ “너무해.” “아니, 난 배추 할래.”
- ⑤ “나 미쳐.” “안 돼, 너 술 쳐.”

[39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난 길에 무쇠 성(城)을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노코 뒤주 안에 께
(櫃)를 싸고 그 안에 너를 ㉠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 [A]
하여 너코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슈괴슈괴*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도 결혼 날의 날 와 볼 할니*
업스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슈괴슈괴 : 꼭꼭

* 할니 : 하루

(나) 찰하리 잠을 들어 꿈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난 잎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난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칠월칠석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B]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렷관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끄쳤는고
난간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쳐 있고 모운(暮雲)이 디나갈 제
㉡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론 사람 수업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날 가타니 또 이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

(다) 찰밥을 싸서 손에 들고 새벽에 문을 나선다. 오늘 친구들과 소풍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점심 준비로 찰밥을 마련한 것이다.

내가 소학교 때 원죽*을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은 과자, 과실, 사이다 등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건대에 뿌듯하게 넣어서 어깨에 둘러메고 모여들었지만, 나는 항상 그렇지가 못했다. 건대조차 만들지 못하고 찰밥을 책보에 싸서 어깨에 둘러메고 따라가야 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가며 찰밥을 지어 싸 주시고 과자나 사과 하나 못 사주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다른 여쭉*은 못 해도, 내 원죽 때를 생각하고 고사 쌀에서 찰쌀을 떠두시는 것은 잊지 아니하셨다. 나는 이 어머니의 애뜻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아예 넘겨다보지도 아니했고, 오직 어머니의 정성어린 찰밥이 소중했었다. 이것을 메고 문을 나설 때 장래에 대한 자부과 남다른 야망에 부풀어, 새벽하늘을 우러러 보며 씩씩하게 걸었다.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애정의 선물이 어린 나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소풍 혹은 등산을 하려면 으레 찰밥을 마련하는 것이 한 전례가 되고 습성이 된 셈이다.

오늘도 친구들과 야유를 약속한 까닭에 예와 같이 이 찰밥을 싸서 손에 들고 나선 것이다. 밥을 들고 퇴를 내려서며 문득 부엌문 쪽을 둘러봤다. ㉢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슬픈 일이다.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다.

어머니는 새벽녘에 손수 숯불을 붙어 가며 찰밥을 싸 주고 기대하며 기르시던 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얻으셨는가? 그는 매일매일 그래도 당신 아들만이 무엇인가 남다른 출세를 하리라고 믿고 그의 구차한 여생을 한줄기 희망으로 살아왔건만 그의 아들은 좀체로 출세하지 않았다. ㉠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 어머니는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그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먼 길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웃음을 보이려 했다. “나는 너의 성공하는 것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이답에 꼭 크게 성공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끝끝내 아들의 성공을 믿으려던 그. 그 아들도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감격에 어린 눈으로 대답했었다. 사실 그는 야망에 차 있던 청년이기도 했다. 환상에 사로잡히어 멍하니 섰던 나는 갑자기 시계를 들여다본다. 아침 여섯 시 반, 일곱 시 사십 분까지 불광동 중점으로 모이기로 된 약속이다. 여명의 하늘은 흰히 밝아오고 서글서글한 바람이 옷깃으로 기어든다. 나는 문을 나서며 먼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백수(白首) 오십에 성취한 바 없이 열한 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 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는 사나이.

어머니! 야망에 찼던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현 터럭을 바람에 날리며, ㉡ 손등으로 곱은 눈물을 닦습니다.

— 윤오영, 「찰밥」 —

* 원족(遠足) : ‘소풍’으로 순화된 말.

* 여축(餘蓄) : 쓰고 남은 물건을 모아 둬. 또는 그 물건.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대상의 부재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생의 무상감으로 인한 내면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공간 이동에 따른 감정의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40. [A], [B]를 비교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A], [B] 모두 화자의 탄식을 의문형 진술로 표현하고 있다.
- ② [A], [B] 모두 만남을 방해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기다림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A]는 유사한 형식의 어구를, [B]는 유사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얻고 있다.
- ⑤ [A]는 말을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B]는 다른 이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1. (나)의 ‘**박명환 홍안(紅顔)**’과 (다)의 ‘**백수 오십**’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현재 처지를 집약하여 보여준다.
- ②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 주제를 제시한다.
- ③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상황의 전환을 암시한다.
- ④ 화자에게 추억을 연상시켜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 ⑤ 교훈적 의미를 드러내 작가의 의도를 분명히 제시한다.

42. (다)의 ‘찰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화자에게 힘이 되는 어머니의 격려가 함축되어 있다.
- ③ 가난했던 화자의 집안 형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켜 내용 전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 ⑤ 화자가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43.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온몸이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한자 ‘必’의 글자 모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 : 화자 자신이 느끼는 서러움을 새 소리에 이입시켜 드러내고 있다.
- ③ ㉢ :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회미해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 : 어머니가 바라던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가 증가할 때 B가 증가하거나, A가 증가할 때 B가 감소하는 것과 같이 두 변수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보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들은 대체로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체중과 신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있는 A와 B 중, 하나가 원인이 되고 다른 것이 그에 따른 결과가 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 상관관계는 변수들의 사이가 밀접하다는 것만을 나타내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두 개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우연일 뿐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종종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착각한다.

그 중 첫 번째 경우가 ㉠ A가 일어난 다음 B가 일어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라고 결론짓는 것이다. 철학자인 밀(John S. Mill)은 인과관계가 ㉡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 앞서야 하고, 원인과 결과는 관련이 있어야 하며, 결과는 원인이 되는 변수만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다른 변수에 의한 설명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조건만 만족되어도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수가 많다. 초콜릿과 두통 사이에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초콜릿을 먹고 나서 두통이 사라진 경험을 자주 한 사람이 초콜릿 때문에 두통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두 번째 경우로는 이런 것이 있다. A와 B라는 두 사건의 원인이 되는 C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A나 B를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 보는 것이다. 휘발유의 가격이 오르면 대개 경유의 가격도 오른다. 그러나 휘발유의 가격 상승이 경유 가격 상승의 원인이어서는 아니고 ‘원유의 가격 상승’이라는 제3의 변수에 의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한 스포츠 평론가는 칼럼에서 감독을 쉽게 해고하면 팀의 승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감독을 자주 바꾼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승률이 낮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감독이 자주 ㉤ 바뀌어서 승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팀이 자주 지게 되면 감독을 바꾸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여, 또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여 사건의 원인을 혼동하는 일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판단, 의학적인 진단과 정치·경제적인 정책 수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 세우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7. 이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들
- ② 상관관계의 종류
- 여러 유형의 상관관계와 그 특징
- ③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 조건
- 먼저 발생한 사건이 반드시 원인일까?
- ④ 생활 속의 논리적 오류
-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⑤ 인과관계 파악의 중요성
- 원인에 대한 오해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들

48.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상관관계에 있는 두 변수는 밀접한 정도에 따라 인과관계가 결정된다.
- ②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상관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 ④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상관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49.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보니 그는 사치스러운 사람이군.
- ② 닭이 울고 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니 닭이 울면 아침이 오는군.
- ③ 너는 햄버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을 보니 햄버거를 좋아하는군.
- ④ 부자들은 모두 부지런한 것을 보니 부자가 되면 부지런해지겠군.
- ⑤ 인기 있는 배우들만 출연하는 것을 보니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겠군.

50. ㉢ ~ ㉥ 대신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성립(成立)할
- ② ㉣ : 선행(先行)해야
- ③ ㉤ : 간주(看做)하는
- ④ ㉥ : 교환(交換)되어서
- ⑤ ㉥ : 수립(樹立)하려고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